

## 단기 4340 년 개천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하는가?

일터와 집만을 반복하며 고된 생활을 해오던 친구가 갑자기 개천문화축제에 동참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개천절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런 의미있는 날에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단다.

그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처음 생긴날.

개천절에 두 개로 갈라진 민족의 정상이 회담하고 있구나.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보통 한 가지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이미 남과 북은 갈라진지 50 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사이 언어를 비롯하여 많은 것이 각자 다르게 변해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임을 느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리랑을 비롯하여 남,북한에는 한민족에게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유문화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그 중심에 '단군'과 한민족 최초의 고대국가 '조선(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앞에 '고'자를 붙임)'이 있다.

북한은 예전부터 단군과 고조선 역사를 이념앞에 두고 중요하게 다뤄왔고, 우리나라 또한 올 해부터 국정교과서에 고조선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은 '단군신화'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

'단군'이라는 글자 뒤에 '신화'라는 말을 처음 붙이고 이를 널리 각인시킨 것이 일제이건만, 우리는 아직 일제가 남겨놓은 역사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제는 한국의 고대사가 역사로 드러나 한민족이 일본보다 더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자긍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수정한 '조선사'를 편찬하여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 보급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는 '단군=대종교의 신'이라는 아주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개신교도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크게 기여를 해왔다. 여전히 일부 무속인들과 특정 종교에서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 속 인물인 단군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일본에서 안중근이나 이순신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지만 안중근이나 이순신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임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분들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에도 테러를 하셔야 한다. 근데 왜 유독 단군에만 집착하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 회담 중에 '단군'이나 '고조선' 역사를 한 번이라도 언급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우리는 다 같은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이 한 마디면 된다. 사실 이념을 넘어서 공통의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개인이 생일을 기념하듯이 국가에도 생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세운 날이고 우리 나라는 '개천절'이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을 총대표하는 대통령이 빠진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주 1) 한 번 상상을 해보길 바란다.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올 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이 나라를 다스릴 다음 지도자를 뽑는 해이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역사인식'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진정 이 나라의 주인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식 없이 주인이 되기는 어렵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관념, 사상에 노예가 되기 쉽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과거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서로 색깔 바꾸기만 했을 뿐이지 매년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그 사상으로 나라를 뒤흔들어오지 않았던가? 이제는 정말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비빔밥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은 바로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인인간 이화세계'이다.

**한민족의 홍익 철학은 특정 민족, 특정 국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조화와 상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글자 그대로 하늘(주 2)의 이치에 따라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근본 내용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지구촌 시대에 딱 맞는 철학 아닌가?  
약 5000 여년 전에 이러한 철학으로 나라를 세운 국조 단군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진다.

물론 오늘날에는 국가와 개인을 등치선상에서 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분들은 서구의 이론에 따라 국가 또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이왕있는 역사적 사실을 용도에 맞게 활용해보자고. 우리의 건국이념은 분명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정확하게 부합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대한민국 브랜드 향상과 아울러 대한민국 이미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PI(개인 이미지 관리)에 활용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부수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럴지 못했다. 이렇게 멋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또한 이미 본인이 제시한 것처럼 '단군'을 내세움으로써 멋진 이벤트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제 이 속제는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요즘 개천절을 리모델링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천절을 왜 기념하는가?'에 대한 담론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특정 단체만의 행사가 되기 쉽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 개천절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은 개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향상에 필요하며, 남과 북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세계 속에서 나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천절날 우리는 반드시 '홍익'을 얘기해야 한다.

때마침 (사)서울국학원, 세계국학원청년단 사이버의병은 '홍익이스트 개천문화대축제'라는 이름하에 금일 전국 각지에서 개천절을 기념하는 문화 축제를 벌였다. 여기서 홍익이스트는 '홍익'이라는 글자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인 'ist'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로 '홍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천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나를 위해 '홍익'을 얘기하자.

어떻게 이 멋진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지.  
어떻게 이 멋진 정신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지.

우리 같이 '홍익'을 얘기하자.

(주 1) 우리나라는 매년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하고 있다.

(주 2)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지 않는다. 우주를 움직이는 섭리, 진리나 법칙 등을 말한다.